

‘거꾸로 무릎보호대’ 하고 軍 홍보



문형철 기자의
어수선하軍

한국군은 진심으로 장병의 안전과 전투력 향상에 고민을 하고 있는 걸까. 군 당국이 공식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홍보하는 사진과 영상들을 보면 ‘홍보라는 수단과 지향해야 할 목표가 뒤바뀐 것 같다’는 비판을 받는다. 장병의 안전을 위해 지급돼야 할 기본적인 무릎보호대가 엉망인데 여과없이 홍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일은 한국군 최대의 신병 양성 기관인 ‘육군훈련소(논산)’의 창립 70주년이었다. 육군훈련소 교관 및 조교, 훈련병 모두 신성한 ‘국방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피땀 흘리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국방부가 국방일보와 SNS 등을 통해 공개한 사진에는 훈련병의 무릎보호대 패드가 뒤집혀 있었다. 한 두명이 아니라 사진에 등장한 모든 훈련병이 뒤집힌 무릎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다. 과거에 공개된 관련 사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물론, 무릎보호대가 보급되지 않았던 과거에 비하면 큰 발전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깊게 들여다 보면 50조원이 넘는 국방예산, 세계 6위의 종합군사력을 갖춘 나라라는 평가를 무색하게 만든다.

국방부가 공개한 사진의 무릎보호대는 미국 크라이 프리시전(Crye Preci



위 사진은 미국 크라이 프리시전 사가 자사의 컴퍼트패드에 끼워넣는 삽입형 무릎보호대. 아래 사진은 육군훈련소에 보급된 무릎보호대로 패드부분의 위아래가 뒤집혀 있다.

sion)사의 삽입형 무릎보호대를 외부 장착용으로 만들었다. 더욱이 무릎패드는 무릎관절과 주변근육의 모양을 생각한다면, 위부분은 좁고 아래가 넓은 사다리꼴 형태여야 한다. 그렇지만 육군훈련소 신병들의 패드는 위아래가 뒤집혀 있었다.

어떤 이유에서 보급품이 설계되는 지에 대한 이해 없이 외국군의 보급품이나 해외제품을 무단 복제해온 군 당국의 관행을 볼 때, 최자가 입찰로 대중구색만 맞추려 한 것은 아닐까라는 추측마저 든다.

이 문제를 몇몇 군인들에게 알려줘도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눈치였다. 육군이 전투원의 생존력과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 중인 ‘위리어플랫폼’ 사업의 일환으로 훈련병들에게

우선적으로 보급을 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제대로 된 보급품이 아니라면 사업의 신뢰도는 분명 추락할 수밖에 없다.

사실, 위리어플랫폼에 대한 우려는 사업초기부터 제기됐다. 위리어플랫폼 사업을 설명하던 육군 관계자들은 ‘과거의 실수를 잊어달라’, ‘이번에는 다르다 좋은 장비를 지급할 것이다’ 등의 의지를 강하게 주장했지만 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무릎보호대처럼 간단한 보호장비만이 문제가 아니다. 파편과 총탄으로부터 장병들의 생명을 지켜줄 방탄복도 야전에서 오랫동안 문제가 제기됐지만, 군 당국은 ‘군초(軍草)’들의 이야기에 크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2014년부터 보급이 본격화된 ‘다목적 방탄복’은 소총 견착사격이 어렵고 옆드려 쏘 자세에서는 방탄복 목가리개 후면이 방탄헬멧 후면을 밀어내 사수의 시야를 가려버린다.

그렇다 보니 방탄복 목가리개를 제거하거나, 아예 방탄복 어깨를 끈으로 묶어서 훈련을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실전이라면 전사상자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문제의 해결 없이, ‘1형 방탄복’이란 이름으로 위리어플랫폼 보급 항목에 포함됐고 향후 확대 보급될 예정이다. 일부 국회의원실에서 기자에게 이런 문제의 자문을 얻었지만, 국정감사에서는 등장하지도 않았다. 여야 모두 ‘위리어플랫폼 사업이 예정대로 완료 돼야 합니다’란 말뿐이었다.

/captinm@metroseoul.co.kr



오는 12일부터 유류세 인하

7주 연속 휘발유 가격이 상승한 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정부는 휘발유 등 유류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고자 오는 12일부터 유류세를 인하할 예정이다. /뉴시스

지붕공사 추락사 2년간 91명 고용부, 해당 사업주 ‘처벌’

지붕 안전덮개 설치 의무화 추진

지난 2년 간 낡은 지붕공사를 하다 추락사한 노동자 수가 90여 명, 올해는 10월까지 40여 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지붕 안전덮개 설치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사고 발생 시 해당 사업주를 엄정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2020년 지붕공사 중 추락해 사망한 노동자 수는 91명으로 집계됐다. 사고는 공장 지붕이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 공사 21명, 축사 지붕 20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사고는 가을(9~11월)과 봄(3~5월)에 집중됐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10월 기준 지붕공사 중 추락사한 노동자는 총 38명이었다. 이 중 12명은 채광창, 슬레이트 등 부서지기 쉬운 지붕재에서 떨어져 숨졌다.

지난 달 16일에는 청주의 한 공장 슬레이트 지붕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지붕 파손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같은 달 27일에는 여주의 한 목장 축사 채광창이 파손돼 1명이 떨어져 숨졌다.

고용부는 채광창 안전덮개, 지붕 가장자리 안전난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지붕공사 작업안전 매뉴얼’도 발간해 공사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매뉴얼에는 ▲고소 작업대·이동식 비계 등 활용해 지붕 밑에서 작업할 수 있는지 확인 ▲작업 통로용 발판과 채광창 안전 덮개 설치 ▲지붕 가장자리에는 안전난간 또는 추락 방호망 설치 ▲작업자는 안전대·안전모 착용 등이 담겼다.

아울러, 고용부는 지붕공사 업체를 대상으로 채광창 안전덮개 지원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선박엔진 운송 9년간 담합 3곳 ‘과징금’

공정위, 과징금 49억100만원 부과

선박엔진을 운송하는 입찰에 참여한 운송업체들이 장기간 담합해오며 중량물 운송비용을 사실상 인상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2016년까지 9년 간 두산엔진(2018년 6월 8일 ‘에이치에스디엔진’으로 사명 변경)이 실시한 선박엔진 등 중량물 운송 입찰에서 담합한 (주)세중, (주)동방, 세방(주)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9억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3사는 이 기간 두산엔진이 매년 실시한 선박엔진 등 중량물의 하역 및 국내운송 용역, 지게차 등 사내중장비 운영업무 입찰에 참여하면서 미리 낙찰예정사, 들러리사를 정했고 그런 합의가 실현되도록 투찰가격을 함께 결정했다.

이런 담합은 두산엔진이 중량물 운송 용역 수행사업자 선정방식을 기존 수의계약방식에서 2008년부터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발생했다.

경쟁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되기 전까지는 두산엔진의 중량물 운송 용역은 세중이 전담하면서 용역업무 중 하역업무에 대해서는 동방과 세방에 재위탁하는 방식으로 수행돼, 3개사는 매

년 두산엔진의 일정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 담합에 참여한 3개 사업자는 각 사의 물량을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경쟁으로 인해 계약단가가 인하되는 것을 방지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3개 사업자는 세중을 낙찰 예정사로, 동방과 세방은 들러리사로 정하고, 추후 낙찰물량 중 하역업무에 대해서는 동방과 세방이 담당하기로 합의했다. 합의한 대로 2008~2016년까지 매년 실시된 입찰에서 세중이 낙찰 받았고, 하역업무는 낙찰사인 세중이 동방과 세방에게 재위탁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공정위는 수입현미, 농산물, 철강제품 등 다양한 제품의 운송시장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해 왔으며 이번 조치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산업부 장관 9일 사흘간 美 방문 반도체 등 현안 논의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11일(미국 동부시간 기준)까지 사흘간 워싱턴 D.C.를 방문해 통상 현안을 논의한다. 이번 방미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공급망, 첨단기술 등을 아우르는 대등하고 호혜적인 경제협력 파트너십으로 격상된 이후, 후속 협력성과를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최근 반도체 공급망 관련 협력과 철강 232조 등 대미 통상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미 상무장관 회담과 에너지장관 회담 개최를 비롯해 미국 행정부, 싱크탱크 및 업계 등과의 면담할 계획”이라며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간 우호적 경제 파트너십 관계를 지속 강화하고 국익을 위한 다방면의 아웃리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오늘 개최

기구제작 등 54개 직종 900명 참여

기구제작, 컴퓨터수리 등 54개 직종에 900여 명의 장애인이 참가하는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가 8일부터 열린다. 올해 대회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열리지 못했던 37회 경기와 동시에 진행된다.

7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올해 38회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는 8~15일 경기도 일산 직업능력개발원 등 전국 9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참가 인원을 전국 단위로 분산했다. 개·폐회식은 모두 비대면으로 치러진다.

올해는 54개 직종에 909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입상자에게는 메달과 함께 금상 1200만원, 은상 800만원, 동상 400만원, 장려상 100만원의 상금을 준다. 해

당 직종에 대해 기능사 필기 및 실기시험이 면제되는 혜택도 있다.

특히 국제대회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위로 입상하면 내년 5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제10회 국제장애인 기능올림픽’에 참가하게 된다.

대회 참가자 중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은 안동후 선수는 2014년 갑작스러운 폐암 발병과 뇌수술로 6개월 시한부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치열한 재활을 통해 컴퓨터 수리 직종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안동후 선수는 “인생의 새로운 기회가 열린 만큼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이 대회를 통해 수많은 숙련 기능인이 발굴돼 중요한 산업 일꾼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장애인이 일터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